

1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

자신을 몰아냈던
오랜 관습과 관념에서 벗어나
지금 이 순간, 자신에게 충실하라.

■ 어제 알고 있던 정보로 오늘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

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했다면
그에 대한 과거의 정보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만나라
그래야만 그에게 집중할 수 있다.

• 오늘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본질을 봐야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해서는 안된다.

•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다. 만날 사람이 에너지를 충족시켜 줄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■ 검사와 도둑의 기운은 같다

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지 않으면 서로 상대하기가 힘들어진다.

•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남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. 그래야만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功德이 된다.

■ 돈도 에너지에 따라 움직인다

운과 복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
바로 자기 자신이 만든다
이것이 바로 '대자연의 진리'이다.

• 자신의 기운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치려면 절대로 남을 욕하지 말고 항상 칭찬해야 한다. 항상 곧은 마음을 지니고 남을 사랑하라. 이것이 바로 운과 복을 동시에 갖는 방법이다.

■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

봄이 오면 꽃이 피고, 여름이면 꽃이 저서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
이처럼 ‘대자연의 법칙’에 의해 이 세상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.

• 인간의 잣대로서 ‘선악’과 ‘옳고 그름’을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대자연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‘선악’의 業報를 내린다는 것이다. 지금 이 순간, 대자연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백배 행보해 질 것이다.

■ 오늘날의 성인은 누구인가

붓다와 공자는 2천 6백여 년 전 동시대를 산 인물이다.
만약 그들에게 라이터를 켜서 앞으로 내밀면
불빛에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날 것이다.

• 타인에게 모범이 되면서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오늘날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. 남을 욕하거나 헐뜯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이로서 만인에게 훌륭한 삶의 지표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곧 오늘날의 성인이다.

•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. 그들은 고집이 세고 자 격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최고라는 ‘我相’에만 젖어 있다.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피해야만 한다.